



미국 보험업계 CEO의 자격 요건

권오경 연구원

연구

최근 보험업계 고위경영진의 이미지가 중년 백인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이 변화하고 있음이 관찰됨. 현재 보험업계의 이사회는 최신 기술 산업 전문가이면서 검증된 인재를 CEO로 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재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향후 보험권의 성공적인 CEO는 경력, 사고력, 성별, 인종 및 연령 측면에서 다양성이 우선시 될 것으로 보임

■ 최근 보험업계 고위경영진의 이미지가 중년 백인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이 변화하고 있음이 관찰됨¹⁾

- Best's Review의 규모 기준²⁾ 상위 20위권의 미국 보험회사와 상위 10위권의 글로벌 보험 브로커 회사를 대상으로 보험업계 CEO의 특징을 분석함
 - 보험권 CEO는 남성이 96%, 백인이 94%였으며, 대부분 50대 후반인 것으로 나타남
- 채용방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양상은 거의 25%가 최근 2년 안에 지명되어 재임기간이 짧아지고 있고, 이사회 위원이 우선임명 대상으로 되고 있음

■ 보험업계 CEO의 특징은 Fortune 500 및 S&P 500 기업의 CEO 특징³⁾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어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이 겪고 있는 고위경영진의 다양성 문제가 보험권에서도 공통된 이슈인 것으로 드러남

- Fortune 500 및 S&P 500 기업의 CEO 연령은 60대 이상이 30%이나, 보험권 CEO의 경우 60대 이상이 35%로 나타남
 - 50세 이하 CEO 비율은 Fortune 500 및 S&P 500 기업에서 50%, 보험권은 51%로 나타남
- 금융회사 CEO 재임기간 분석결과, 보험권 CEO의 재임기간이 평균보다 짧았음
 - CEO의 평균 재임연도는 금융권의 경우 9.1년, 보험권은 8.1년으로 나타났는데, 극단치⁴⁾를 제외하

1) Kate Smith(2018. 7), "CEO in transition", *Best's Review*, A.M. Best

2) 보험 브로커 회사의 경우 2017년 매출액, 손해보험회사는 2017년 순보험료, 생명보험회사는 2017년 자산 기준임

3) Crist Kolder Associates의 Volatility Report 연간 조사내용과 비교함

4) Berkshire Hathaway의 Warren Buffett과 Fairfax Financial의 V. Prem Watsa는 창업자로서 이 두 명의 재임기간을

면 보험권 CEO 평균 재임기간은 5년에 불과함

- CEO 직전 이력의 경우 47.5%가 사장 또는 COO(Chief Operation Officer)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험권은 이러한 비율이 49%로 나타남
- 보험권 CEO의 성비 불균형은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⁵⁾, Fortune 500 및 S&P 500 기업의 여성 CEO 비율은 8.5%였음

■ 현재 보험업계의 이사회는 최신 기술 산업 전문가이면서 검증된 인재를 CEO로 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재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이사회가 원하는 CEO는 혁신적이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전략적 사고로 핀테크 및 인슈어테크에 대한 투자, 기술 플랫폼과의 제휴, M&A 등의 글로벌 업무가 가능한 인재임
 - 그러나 보험권 CEO 중에 CTO(Chief Technology Officer)나 CDO(Chief Digital Officer) 출신이 임명된 경우는 거의 없음
- 현실적으로 최신 기술 전문 인재에 적합하게 CEO의 연령이 낮아져야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과거에 비해 CEO의 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50대 이하 CEO가 2010년 이전에는 18개 보험회사 중 14명이었으나, 2011년 이후 단 2명에 그침
 - 이러한 현상은 보험권에 국한되지 않으며⁶⁾ 이사회의 리스크 회피성향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이러한 이사회의 리스크 성향은 금융위기 전후보다 보험산업 내부인력에서 CEO를 충원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위기 이전에는 은행 및 투자업계 경영자가 보험권 CEO로 다수 임명되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외부 영입이 현저히 줄어들어 현 보험권 CEO의 81%가 내부인력으로 충원됨

■ 향후 보험권의 성공적인 CEO는 경력, 사고력, 성별, 인종 및 연령 측면에서 다양성이 우선시 될 것으로 보임

- 보험권 CEO의 고연령화 추세 및 보험업권 내부의 인력충원 방식은 향후 기업의 승계계획과 기술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kiri](#)

합하면 81년임

5) Progressive와 John Hancock에서 각각 여성 CEO가 최근 2년 내 임명되었음

6) Fortune 500 및 S&P 500 기업에서 임명된 CEO의 평균 연령은 2012년 45세에서 2017년 50세로 상승함